

## 유방암 조기발견 실천을 위한 유방검진 전문가 훈련사업

이 은 옥(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은 양호교사와 유방암 생존자에게 교육하고 그들에게 정상 여성들에게 다시 교육하게 하는 연구사업이다.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근무하는 양호교사 71명과 비너스회 회원(유방암환자) 14명, 총 85명에게 전문가 교육을 시켰으며 이들은 다시 5명 ~ 10명의 일반 여성에게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교육하기 전과 교육후 2차에 걸쳐 유방암에 대한 민감성, 유익성, 장애성과 자기효능, 자기결정의 내용을 조사하였는데 빈칸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양호교사 67명과 유방암환자 7명만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방검진행위의 이행율, 유방과 관련된 경험은 실수와 백분율, 유방암과 유방검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감은 자가보고도구이며 유방자가검진능력 평가는 관찰자의 평가이다.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구했으며 민감성은 0.84, 자가검진 유익성은 0.80, 유방촬영술 유익성은 0.72, 자가검진 장애성은 0.78, 유방촬영술 장애성은 0.70, 자기효능은 0.91, 자기결정은 0.67이었다.

**[연구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Windows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유방검진행위의 이행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치로, 교육 전과 후의 유방검진에 대한 건강신념,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평균연령은 42세, 평균 월수입은 433만원, 57%가 운동을 전혀 안하거나 주 1-2회 하는 경우였다.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어 본 사람은 98.1%였으나 지난 6개월동안 자가검진을 한번이라도 시행한 사람이 35.1%, 정기적으로 유방진찰을 받은 사람이 24.3%였다.

교육 전과 후의 각 변수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민감성은 1%에서, 자가검진에 대한 유익성은 0.01%, 유방촬영술에 대한 유익성은 1.18%, 자가검진에 대한 장애성은 1.7%, 유방촬영술에 대한 장애성은 4.0%에서, 자기효능은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자기결정지표는 전후간에 차이가 없었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 정상인과 유방암생존자가 섞여 있어서 선행연구와 달리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어본 사람도 많고 유방자가검진을 한번이라도 실시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에 유방암생존자를 더 포함시켜 정상인과 유방암생존자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연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호교사와 유방암생존자들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면서 자료가 수집된 후에 간호전문인과 이들 일반인들의 자료를 비교할 것이다.